



이기영원장



한관우 부처님



송한구 교수



김명연 부처님

“일체중생의 자유 원효의 도”

한국불교학 ‘고전에 나타난 도’ 학술회의

노·장애선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의미

물질문명의 풍요속에서 정신적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동서양의 고전에 나타난 도(道)는 어떤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까.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지난 18일 태워호텔에서 ‘고전에 나타난 도의 의미’를 주제로 95 국제불교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기영박사는 ‘원효의 저술에 나타난 도의 의미’란 발표문을 통해 ‘원효의 도는 중생의 마음의 길요 일심(一心)의 길’이라며 ‘중생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가고, 다시 그 마음으로 마음의 길을 노니는 대 자유의 삶이 원효의 도’라고 말했다. 이박사는 또 ‘과정과 방편으로서의 도, 근원과 목표로서의 도는 중생이 사는 곳(處處)과 중생과 더불어 하는 일(事事) 모두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라미가 노리포시(荒牧典俊) 경도대교수는 ‘복귀의 충신 고운(高允)의 불교사

상에 대하여’란 논문에서 고운(390~487)이 남긴 문화작품(죽원부(鹿苑賦) 등의 자료를 통해 중국고대불교에 있어서의 도와 법(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혔다. 아라미교수에 따르면 ‘운강(雲岡)석굴의 조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던 고운의 불교사상은 △대승경전의 독송 △성실론(成實論)에 근거한 지관행(止觀行)의 실천 △노사나불, 천불을 관하는 관불삼매(觀佛三昧) 수행 등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도’를 발표한 송환구 성균관대교수는 ‘노·장의 도는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살아서 존재하는 자연’(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라 미노루(原廣) 동경대교수와 강경태 건국대교수는 ‘인도고전에 있어서의 리타(Rta)와 다르마’ 회담고전과 성서에 있어서의 로고스(Logos)를 각각 발표했다.

전통·현대교과 조화 지도·평가 체계 일원화 “급한 불”

佛發研 세미나 ‘21세기 승가교육제도의 개혁방향’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교육후득도(先教育後得度)제도를 중심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승가교육제도의 개혁방향을 논의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진)

지난 13일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이 소피텔엠버서더호텔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승가교육제도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연 이번 학술세미나는 현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 21세기 한국사회의 있어서 교역자(敎役者)의 역할 등을 조명했다.



佛發研 세미나 ‘21세기 승가교육제도의 개혁방향’

기조강연에 나선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승려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승가교육제도가 법계(法階)제도와 연관을 지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게 하고, 법계를 받지 않은 승려에게는 모든 중무직에 종사할 수 없는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행자교육과정을 대학교육 수준으로 향상시켜 승가대학 4년 졸업시에 사미·사미니계를 졸업 것과 △지방승가대학(강원)을 전문화시켜 강원을 졸업해야만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승국대는

전문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법산스님(동국대교수)은 조계종 법계제도가 마련돼 있으면 불교교육은 필수, 유원, 기초선원, 중앙승가대학의 모든 교육과정과 미래승가상의 충족조건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과목도 포함해 전과정을 과목화하고 과목이수를 학점화하여 교육원에서 일괄 관리·통제한다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윤원철 서울대교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교역자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교역자의 양성과정에서 전통적인 구도(求道)교육에 덧붙여 현대적 교과과정인 포괄된 교육의 시행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법산스님 해홍스님(동국대 석림동문회장) 박선영교수(동국대)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등이 나서 전통교육과 시대상황에 맞는 교양교육의 조화를 통한 승가교육제도의 개혁에 공감대를 표했다.

나 사찰의 인력난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홍선스님(중앙승가대교수)은 승가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분석하면서 승가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 통일교육제를 제시했다. 이 통일교육제는 행자로 출가 입산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의 전과정을 일관된 교육기간으로 하고 교육내용·지도·감독·평가를 조계종 교육원의 교육정책의 시행 관리 아래 둔다는 것이다. 즉 사미, 사집(四集)과정(대중시봉과 큰방생활 등 전

김재경 기자

제사때 절을 몇번해야 하는지

문 그동안 유교식 제사를 모시다가 불교식으로 바꾸었는데 절을 할 때마다 몇번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세번도 했다가 때로는 두번 반도 했다가 그러는데 일배만 해도 되는 것이지요.

답 (임찬우·서울 용산구 갈월동) 마음이 중요하지 이 몸 움직여서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는 것인데 바쁘면 바쁜 사정에 따라서, 시간 여유가 있다싶으면 여유있게 하면 됩니다. 일배만해도 그 일배가 삼배, 사배가 될 수도 있고 1천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천배를 올리는 마음으로 일배를 했다면 그 일배가 삼천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숭배할 신처럼 느껴져

문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바깥 형상으로 찾아서는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잘못된 느낌이 아닌지요.

(이창시·포천군 일동면)

이 또한 자성부처가 하는 일이지 하다가도 생각이 안 나서 잊고있었다고 ‘아하 내가 그만 끊어 먹었구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삼천년 전과 오늘이 틀이 아닙니다. 이 말뜻이 뭔지 잘 살펴보세요. 그동안 수차례나 설명하신 설명을 했더라도.

마음으로 미국·혹성도 본다는데

문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으로는 미국도 가볼수 있고 다른 혹성도 가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직직이나 제 친구집 같은 곳은 이미 알고 기억하니까 그것을 되돌려 보는 것일텐데 정말로 앉아서 미국도 혹성도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답 (김주봉·서울 서초구 방배동) 오산봉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공부를 해라, 그래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의 내가 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몸이 없어도 볼 수 있고 보는 사이에서 볼 수 있고 듣는 사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대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알아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법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문 다섯 손가락을 폼다 오므렸다 해야 정당한 손이요? 본래 부처로 태어났는데 어찌 부처 생각이 안나겠습니까. 조상해 놓은 형상을 부처라고 보지 마시고... 그 옛날 그 시절에 난 본도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여러분이 부처이고 증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생각이 안나겠습니까. 수시로 부처생각도 나고 조상생각도 나고 아버지생각, 아내생각, 자식생각도 나고 친구생각도 나고... 그렇게 때때로 바뀌면서 생각하는 걸요. 그렇다고 부처생각 나는 것과 하찮은 생각 나는 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는 안됩니다. 다 한군데서, 부처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개치지 마세요.

자성부처를 때때로 잊을 때가 있어요

문 평소엔 일을 할 때에도 늘 ‘이렇게 하느 게 자성부처의 나뭇가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일에만 파묻힙니다. 근기가 낮아서 그런 것일까요.

답 (우제경·충북 진천군 이월면) 늘 그렇게 관하다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공부가 끊겼다고 생각치마세요. 그냥 시공을 주름잡고 보면 아침에 했다가 저녁나절에 다시 생각이 났다해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냐? 그러지 않습니다. 발을 댄 자리와 발을 놓는 자리가 틀이 아니니 마음의 축자법이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능히 익어서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덜 익어서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아주 능익어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나면

야 형형색색 모든 종류와 같이 융합 수 있습니다. 일체는 공체요 공심요 공생요 함께 돌아가고 있으니 반야줄을 잡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절로 알게되는 것이요. 그러기에 나온 구명을 관하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줄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안다해도 50% 반쪽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외계의 앞선 과학문명(?) 활용하려면

문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 우주엔 우리 지구보다 과학문명이 훨씬 앞선 혹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의 기술을 지구에서 끌어다 쓸 수는 없는지요.

답 (전봉철·서울 강남구 논현동) 마음으로 자재로이 운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이 문명세계는 정신계를 소용하고 물질계로만 치달으니까 복잡다단하기만 할뿐 도리를 알아서 세련되게 꾸러가지를 못합니다. 실은 문명세계란 다름게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 개발된 세계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이 문명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신분야에 더 발전이 있어야 과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과학자들 중에 심안이 조금 열려서, 그런 왜냐하면 정생에 배운게 얽매어 눈이 조금 틔어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의 과학문명을 이끌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문사등 한국최초 절터 위치 추정

문명대교수 논문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인 고구려의 성문사(省門寺)와 이불란사(伊佛蘭寺)의 위치를 추정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논문은 고구려·발해 학술연구위원회(회장 문명대)가 청림기념으로 지난 18일 태

워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고구려 문화학술대회’에서 문명대 동국대교수가 발표한 ‘고구려 초창 불교사원과 불교미술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그것.

문교수는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삼국사기’ 등의 사료 검토와 국내성 동문 밖 5백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자(東臺子)건물지와 석주(石柱)건물지(集安 남쪽 5백미터 지점) 등의 답사를 통해 이 두 곳이 성문사와 이불란사의 절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교수는 “장정(長川) 1호벽화 가운데 불배도(佛禮拜圖)와 기타 불보살, 천인상들의 벽화는 당시 불교미술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뿐 아니라 사원의 불교벽화 연구에 절대적인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구려·발해유적을 집중 발굴·보존 연구하게 될 고구려·발해학술연구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창립된 고구려·발해사 관련 순수민간학술단체이다.

주석했다고 문헌은 전하고 있지만 이 두 절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불란사 절터로 추정되는 만주 집안의石柱 건물지. 당간지주로 추정되는 석주가 보인다.

이불란사 절터로 추정되는 만주 집안의石柱 건물지. 당간지주로 추정되는 석주가 보인다.

국씨전영양소 전국 광역시단위 총판 및 시도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성공 사업의 지름길로 초대합니다

■ 유통업자 ■ 기존 다이어트 아이템 취급자 ■ 사업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 ■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

● 세계인을 위한 ●

다이어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한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권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개발자 국민권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임소
1978년 中南(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부산경남총판
(051) 818-0337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우무역
전화:(02) 929-02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